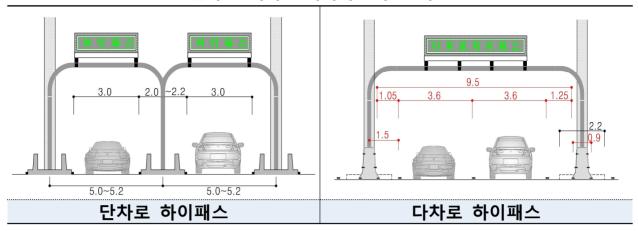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0. 3. 17.(화) 총 6매(본문4, 붙임2)		
담당 부서	서울세종고속도로팀	담 당 자	• 팀장 이상옥, 사무관 윤한섭, 주무관 박제구 • ☎ (044)201-4130, 4135, 4132		
	도로정책과	담 당 자	<ul> <li>과장 이상헌, 사무관 신우철</li> <li>☎ (044)201-3875, 3874</li> </ul>		
보도일시		2020년 3월 18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17.(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 다차로 하이패스로 편하게 지나가세요 빠르고 안전한 다차로 하이패스, 전국 주요 영업소에 구축 확대

- □ 빠르면 내년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 차량 속도 그대로 차량속도를 줄일 필요 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다차로 하이패스**'를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 설치**('21년 까지 60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다차로 하이패스'는 두 개 이상의 하이패스 차로를 연결(차로 간 구분시설을 제거)하여 보다 넓은 차로 폭을 확보(3.6m 이상)함으로써 운전자가 사고위험 없이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 할 수 있다.
- □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하이패스는** 차로 폭이 협소(3.5m 미만)한 경우가 많아 **제한속도가 30km/h**로 설정되어 있으며, **운전자가 불안감**을 느끼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 반면, 다차로 하이패스는 차로 폭이 본선과 동일한 수준이므로 **주행속도 그대로 영업소를 통과**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으며, 운전자도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다.
- 다만, 경찰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톨게이트 밖의 교통흐름 상 안전 등을 고려하여 제한속도는 80km/h(본선형 영업소), 50km/h(나들목형 영업소)로 조정할 방침이다.
- □ 실제로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한 서울 영업소 등에서 다차로 하이 패스 이용객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차로 하이패스의 종합만족도는 4.10점(5점 만점)으로 단차로 하이패스 (3.18점)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안전성과 신속성** 측면의 만족도가 **대폭 상승**하여 다차로 하이패스를 확대할 경우 국민이 느끼는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된다.

**<단차로·다차로 하이패스 만족도 비교>** (5점 만점)

구 분	단차로 하이패스(A)	다차로 하이패스(B)	만족도 차이(B-A)
종합만족도	3.18	4.10	+0.92
안전성	2.91	4.07	+1.16
신속성	2.79	4.05	+1.26
시인성	3.66	4.07	+0.41

□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21년까지 총 60개소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 패스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ul> <li>먼저, 올해에는 사업효과가 크고(제한속도 30→80km/h) 교통량이 많은 동서울, 시흥 등 13개 본선형 영업소에 우선적으로 다차로 하이 패스를 구축하고,</li> </ul>
○ 내년에 구조변경이 필요한 4개 본선형 영업소와 교통량이 많은 28개 나들목형 영업소에 구축하고 나면, 주요 고속도로 영업소(기구축 15개소 포함, 총 60개소) 대부분에서 다차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국토부는 하이패스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b>차로 폭이</b> 3.5m 미만인 하이패스 차로를 3.5m 이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ul> <li>'20년까지 개선효과가 높은 162개의 진출 차로를 우선 개량하여 급격한 감속 없이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후 진입 차로도 순 차적으로 개량한다는 방침이다.</li> </ul>
□ 국토부는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시 이용자가 느끼는 효과 외에도 경제적 편익이 매우 클 것으로 내다봤다. 톨게이트를 신속하게 통과 함으로써 통행시간 단축(1,113억 원), 운행비용 절감(232억 원), 환경비용 절감(55억 원) 등 연간 1,400억 원의 편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ul> <li>아울러, 하이패스 한 차로 당 처리용량이 최대 64%(1,100대/시간→ 1,800대/시간) 증가되어 영업소 부근의 지정체가 크게 해소되고, 매년 30건 이상 발생하는 톨게이트 부근의 교통사고도 차로 폭 확장에 따라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li> </ul>
□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다차로 하이패스를 지속 확대하는 등 고속도로 운영 전반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중심의 고속도로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북수원 영업소 개선 전·후 모습>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서울세종고속도로팀 윤한섭 사무관(☎044-201-413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1

##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 현황 및 계획

(단위: 개소)

구 분	계	본선형	나들목형
계	60	26	34
2018년 까지	4	서부산 (1)	강릉, 대관령, 순천 (3)
2019년	11	서울, 서서울, 동광주, 남대구 광주, 부산, 마산, 남인천 (8)	북수원, 북대구, 서안산 (3)
2020년 13 동 토		동서울, 시흥, 성남, 청계, 김포, 구리남양주, 동광산, 서대구, 북부산, 산인, 대동, 칠원, 통영 (13)	
2021년 32		목포, 춘천, 팔공산, 포항 (4)	기흥동탄, 북천안, 남세종, 안산, 군포, 매송, 이천, 송악, 북대전, 북광주, 구미, 경산, 동김해, 판암, 서산, 서이천, 남구미, 평택, 청북, 진례, 당진, 송탄, 서평택, 남원주, 군북, 양산, 동창원, 진주

<sup>\*</sup> 본선형 영업소 중 교통량이 적거나 영업소 구조상 별도 검토가 필요한 8개소 제외

## 다차로 하이패스 사업 효과







